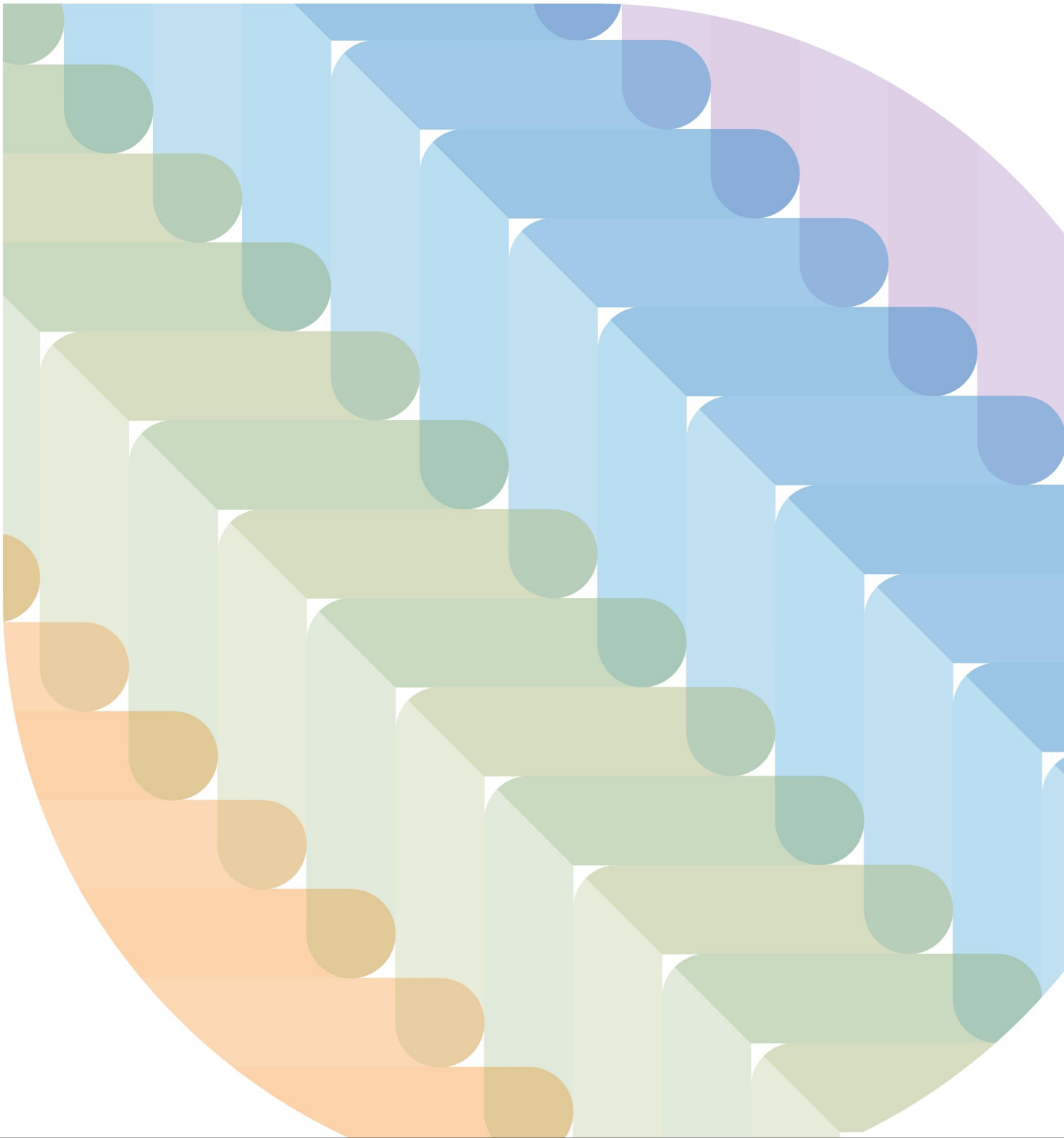


이슈 분석

# 여성봉제노동자 건강문제와 논의 과제

: 시간 압박과 생애주기 연구 검토



## 목 차

1. 들어가며.....	02
2. 여성봉제노동자 이슈와 한국적 맥락.....	03
3.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	06
4. 시간압박과 봉제노동자의 건강.....	09
5. 나가며.....	12
<참고자료> .....	13

## 여성봉제노동자 건강문제와 논의 과제

: 시간압박과 생애주기 연구 검토

김재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이 글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에서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중년 이상의 여성 노동자 건강향상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과제를 제시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전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015년 상반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봉제산업 노동자)의 약 71%는 여성이며<sup>1)</sup>, 40~50대 중년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59%에 이른다. 이처럼, 봉제업종은 중고령 여성 종사자-특히, 중년층 여성-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봉제업노동자의 건강문제와 근로환경은 다른 직군에 종사하는 중년 여성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을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나 해당 부분의 서술은, 평균적인 중년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 현황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의 심각성 제시에 국한되었다. 40대 이상 중고령 여성의 생활 양식에 적합한 건강향상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간략하게 제언했을 뿐, ‘중고

령 여성’의 건강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는 중년 이상의 여성 봉제노동자에게 특화된 건강향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논의-‘시간압박 경험’과 ‘생애주기’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간압박과 생애주기는 근래 ‘여성과 노동’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키워드이다. 이는 ‘일-가정 양립’과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는 사안으로,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도 친숙하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봉제산업 종사자의 생애주기와 시간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봉제업에 대한 관심은 주로 산업진흥과 신규인력수급 방안 탐색에 쏠려, 논의의 방향이 산업연구로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근로환경조사에서 의류봉제업계의 직종이 포함되는 수준으로 언급되었다.<sup>2)</sup> 국내 봉제노동자의 연령대와 생활상은

1) 통계청에 따르면(2014년 기준), 전국의류봉제업에 종사자 중, 여성은 약 68%이다. 대표적인 생산기지인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베트남에서도 봉제업은 여성 종사자의 편중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이다.

2) 김재희 외,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논의의 변방에도 위치하지 못한 상태이다. 봉제노동자의 다수는 중년기 여성노동자임에도,<sup>3)</sup>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을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문제 논의에 접목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수행한 여성봉제노동자와의 대면 면접에서는 봉제노동자의 시간압박 경험과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대역할이 드러났다. 남성 종사자에 비해, 이들은 작업장 업무 시간 외에도 무급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시간부족’과 ‘휴식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성봉제노동자는 중장년 여성에게 적합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활동을 생활화하기 어려운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봉제노동자 건강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및 시간압박 관련 연구를 활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봉제노동자의 건강관리, 근무환경과 시설 개선 등 후속작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성노동자의 건강향상과 여가 및 시간 활용에 대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여성봉제노동자 건강문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여성봉제노동자 이슈에 적합한 관점을 탐구하기 위해, 시간압박과 중년이상의 여성의 생애주기-건강관리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2015) pp. 24-27.

3) 40-50대 중년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더 높은 점, 현 50대 노동자가 연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상에 의존하여 중고령 여성 중심의 산업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여성봉제노동자의 실태를 다룸에 있어, 시간압박과 생애주기가 주요 논의로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기존 연구 리뷰를 통해, 여성봉제노동자 건강관리와 관련된 논의의 방향성을 제안할 것이다.

## 2. 여성봉제노동자 이슈와 한국적 맥락

### 1) 여성 봉제노동자 관련 이슈

봉제 작업장에서 발견되는 건강 및 안전에의 위협은 전반적인 노동권과 건강권의 맥락에서 문제시되는 사안이지만, 여성 이슈 그 자체이기도 하다.<sup>4)</sup> 전술했듯이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직종이기 때문이다. 여성봉제노동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고충과 그 심각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 봉제 업계의 종사자 다수는 여성이며, 봉제노동자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상식이다. 아래의 보고서에서는 라나플라자 참사 이후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도적 접근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에 대한 항목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D'Ambrogio, "Workers' condition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just an Asian Affair?"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Briefing (2014).

해당 이슈에 대한 젠더관점 활용의 필요성은 다음의 글에서도 드러난다.

Alexa Roscoe, "What BBC's Panorama didn't say about workers in Bangladesh.", (The guardian 2013.10.1.) (<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sustainable-fashion-blog/bbc-panorama-workers-bangladesh>)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1) 작업장 안전 문제, (2) 저임금(낮은 공임)과 장시간 노동, (3) 노동조건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이다. 문제의 발생원인은 고부가가치 패션 산업과 연계해 높은 단가의 생산유통구조가 자리 잡은 일부 국가(지역)를 제외하고, 대개의 봉제업이 ‘노동집약적 공정’에 기대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의 봉제 노동자는 낮은 공임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 봉제업계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울 봉제업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봉제업 종사자 당사자들은 긴 노동시간과 낮은 공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sup>5)</sup>

노동조건과 작업장 환경 개선 문제는 현재 서울 봉제업계에서도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공정에 비해, 투입된 노동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며, 건강안전 문제에 대한 보호조치도 부족하다. 이는 봉제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등의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여성노동자가 호소하는 고충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고안해야만, 실질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다.

근래에 출간된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등지의 봉제노동자의 처우와 건강, 안전 문제를 다룬 페이퍼에서는 저개발국가의 여성인권과 교육수준, 경제적 책임, 초국적 기업과

연결된 가치사슬 내의 착취 구조 등을 두루 다룬다.<sup>6)</sup> 전 세계의 의류봉제제조업 종사자(Garment worker) 대부분은 여성이며, 고등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성별 분업과 사회적 성차별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서울의 여성봉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미시적인 지원책은 다카 부근에 거주하는 여성노동자 지원방안과 동일선 상에 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양국의 여성 봉제 노동자의 삶의 궤적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원의 구체적인 형태도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 2) 한국적 맥락: 쟁점의 차이

1970~80년대 한국 봉제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제 3세계 봉제노동자의 삶과 노동에 관한 관심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당시 한국의 봉제산업은 젊은 여성 노동자 중심의 대표적인 제조업이었으며, 현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수준의 처우가 통용되었다. 현재, ‘세계의 봉제 공장’인 제 3세계의 봉제노동자는 국내 봉제노동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들은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개념화되는 세계경제체계의 변화와 유통구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제3세계 봉제노동자의 삶과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의류봉제산업의 공간적 재편이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가의 낮은 인건비를 유인으로 삼아 국제적인 생

5) 연구보고서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봉제업 종사자는 전국 봉제업 종사자의 약 57.3%를 차지한다.

6) D'Ambrogio, *op.cit.*;

7) *Ibid.*

산거점 이동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봉제공장 집적지에서는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감수가 당연시되어왔다.

현재, 서울의 의류봉제업 종사 직군은 봉제사와 보조,<sup>8)</sup> 패턴 작업, 마무리 공정<sup>9)</sup>을 수행하는 수많은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2시간 혹은 그 이상을 작업장에서 소요하며,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엄청난 작업량을 소화해낸다. 업계 성수기에, 봉제사가 밤 10시 이후 심야에 재봉틀 앞에 한 자세로 앉아 일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풍경이다. 즉, 여전히 스웨트 숍(sweat shop)의 특징<sup>10)</sup>이 남아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현상의 원인은 30여년 전 봉제업계의 착취적 노동조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90년대부터 수출기지 역할이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 해외로 점차 이전됨에 따라, 국내 봉제업의 규모는 축소되었고, 업체 운영과 종사자의 생계 차원에 타격이 있었다. 봉제업 종사자는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공임과 처우, 급박한 마감 기한을 감수하며 운영을 지속해왔다. 오늘날 봉제 노동자의 과잉노동이 완화되지 않은 이유는 ‘파이의 축소’라는 산업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8) 보조는 통칭 ‘시다’로 불리는 직종으로, 봉제공정에 꼭 필요한 직군이다. 봉제업체가 집중된 거리에는 ‘시다 구함’과 ‘객공 구함’이라는 벽보가 흔히 발견된다.

9) 통칭 ‘시아게’, 단추 달기 다림질을 포함한 모든 마무리 공정을 담당하는 곳을 ‘시아게집’이라고 부른다.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은 주로 야간이다.

10) D’Ambrogio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많은 노동량, 낮은 급여, 작업장시설 안전성 문제 등은 스웨트 숍적인 특성이다.  
D’Ambrogio *op.cit.*

지금 한국 봉제노동자가 경험하는 일터에서의 고충과 생활상은 세계의 봉제공장 노동자들과 다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여성 봉제노동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방법과 휴식, 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각 국의 봉제업계 내부 구조와 노동자 당사자의 생애사적 특징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각 지역에서 봉제업계의 생산-유통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서울의 봉제업은 내수에 집중하는 다수의 영세사업체가 지탱해나가고 있는 반면, 국제적 생산기지인 3세계 국가에서는 ‘레디-메이드’상품을 생산하는 대형 공장의 비중이 훨씬 높다.<sup>11)</sup> ‘레디-메이드’ 생산기지인 방글라데시 공장에서의 인권 착취의 구조는 대공장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대우, 성차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초국적 의류업체 및 유통사에 납품하는 공장의 비중이 높은 ‘라나 플라자’에서는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괄적 지침 적용이 변화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현재 서울 봉제업계에는 시장상권에 의존하는 영세한 규모의 공장이 다수이며, 각 업체의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여<sup>13)</sup> ‘사장’

11) Ferdous Ahamed, “Improving Social compliance in Bangladesh’s Ready-made Garment Industry,” *Labour and management in development journal* 13 (2012)

12) 2013년 라나플라자 붕괴라는 대형 인명사고는, 안전기준 미준수 문제, 건강안전을 위한 공장내 설비의 부재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사건이다. 방글라데시에 생산기지를 둔 초국적 기업들은 공장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에 참여하였다.

김아람,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 30개월, ‘H&M’ 안전협약 이행 저조…개도국 노동자의 비애” (더 아시안, 2015.10.8.)  
(<http://kor.theasian.asia/archives/146960>)

과 ‘노동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제도 밖에 놓여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작업장 안전 기준 등을 적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힘들다. 더불어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와 노동력 착취의 맥락이 대공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건강안전을 위한 지침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과 방글라데시 봉제노동자의 생활양식의 차이도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탐색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다카 근교의 노동자와 서울의 여성 봉제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라는 특성을 공유하지만, 다른 궤적의 삶을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양국의 여성 노동자가 속한 세대(코호트, cohort)와 가정 내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가시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과 제 3세계의 여성봉제노동자들은 상이한 생애주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이는 건강상의 문제, 자아실현과 인식, 가정 내 역할- 돌봄 노동의 대상, 가사 분담 수준-등에서 다른 그룹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 3. 생애주기와 건강

13) 봉제업계의 사정 상, 근처 시장 상권을 납품처로 하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업무부담은 가중된다. 불안정한 일감 수급으로 인해 출근 낮은 수준의 공임을 받기 때문에, 개별 종사자들은 다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생애주기의 고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취업 양상, 질환 유병률, 시간 활용, 가정과 사회에서의 기대역할은 달라진다. 한국의 기혼 여성은 결혼과 육아에 매진하는 연령대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연령대에서 질적으로 다른 삶을 경험한다. 소득의 원천과 비중도 달라지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기준도 차등을 보이게 된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패턴은 세계 의류의 하청공장인 ‘방글라데시’의 여성노동자와 서울 봉제공장의 여성노동자 사이의 간극을 야기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를테면 제 3세계 봉제산업에 대한 접근에서는 젊은 여성의 교육, 육아 문제, 임금과 대우에서 성차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다. 방글라데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 중 30세 이하 젊은 여성의 비중은 90%이상으로, 이들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임금과 협상력 차원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sup>14)</sup> 캄보디아의 여성봉제노동자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데, 노동환경과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비롯해 상급자들에 의한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이 제시된다.<sup>15)</sup> 제3세계 여성

14) Mehedi Hasan Sikdar *et al.*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Female Garment Workers in the Capital City of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4(3) (2014).

15) World Bank. 2006. *Cambodia - Women and work in the garment industry. Justice for the poor ; J4P.* (Washington, DC: World Bank, 2006) 이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젊은 여성이 경험하는 작업장 내 안전, 건강, 영양양육 등 각종 처우

노동자 대상의 해결책은 여성차별과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 마련에 치중되고, 젊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지침 이행을 촉진하는 관리감독의 규범화 등을 포괄하게 된다.<sup>16)</sup>

한국에서도 봉제노동자의 기술과 생산력에 비해 낮은 처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술한 제3세계 노동자에 적용할 해결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한국 봉제업 종사자는 40~50대 이상 코호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젊은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한국의 봉제노동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방안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를테면, 한국의 여성봉제노동자에게 교육-훈련 과정을 제시할 경우, 당사자들이 원하는 선의 기술교육 외에는 노후준비에 유익한 정보 공유,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체육활동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국내 봉제노동자도 빈곤과 성차별, 업무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그들의 수요는 중년과 노후에 보낼 삶을 설계하는 것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시장에 신규로 유입될 젊은 연령대의 인력에 적용할만한 방법이다.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향상하고 업무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실효성이 낮다. 현재 한국에서 젊은 여성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지침을 훈련-교육해야한다.

16) Ferdous Ahamed, *op. cit.*

나 젊은 세대의 봉제업 종사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sup>17)</sup>, 중년기 여성봉제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중년기 한국여성은 자녀세대의 교육과 진로문제에 관여하며 배우자와 부모세대에 대한 돌봄도 수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각종질환에 대비하는 건강관리 활동(운동과 취미생활 등)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데, 고령 여성의 건강은 중년기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sup>18)</sup>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봉제노동자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조에 익숙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중년층(40~50대) 여성은 청소년기 자녀 혹은 청년층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봉제노동자도 유급노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이러한 패턴에 따라 생활하는 편이다. 귀가 후, 집안일을 마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족 돌봄과 출근준비를 동시에 수행한다.<sup>19)</sup> 작업

17) 봉제업계에서는 봉제업의 노동강도와 이미지를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젊은 세대가 고된 일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기능인으로써의 대우가 낮은 편인 봉제업 기술자로 진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아래의 면접은 이러한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봉제는 좋은 기술이다. (우리는)장인이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70년대 못 배우고 누나(언니)들이 그 고생 밤새게까지 고생하는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다른 알바(아르바이트) 하려고 하지, 먼지 먹고 안 하지...(중략)... (젊은이가 봉제일을 하지 않는 것은) 먼지 때문에, 실밥이 싫은 거지, 일을 하다 보면 꼴이 꼴이 아네요”

18) 이용미 외, “중년 여성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10호 (2014). p.571

장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유급노동시간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은 봉제노동자의 일상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남아있다.

봉제노동자가 감수하는 체력적 부담과 정서적 긴장은 업무자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 이상의 여성’으로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생물학적 나이의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 2) 중년기 여성 노동자의 일과 건강

봉제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지니지만, 가정 내 ‘엄마’의 역할에 대한 강한 의무감도 가지고 있다. 중년 여성은 성별분업에 따른 의무를 감수하고자 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이 속한 세대 특성상, 배우자의 가사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 결혼 이후 계속 담당해온 무급노동과 정서적 지지를 필연적 과업으로 여기고 수행한다.

19) 면접조사 중, 한 연구자가 노동의 피로를 잊기 위한 음주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음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응답한 남성종사자와 달리, 여성들은 귀가 후 집안일을 마쳐야 하고 익일 이른 시간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어서) 집에 가자마자 청소와 빨래를 해야해요.” “아침엔 가족들 밥해 먹여야지”

위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 외 시간에는 가정 내 돌봄 책임을 홀로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여성봉제노동자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바와 수행하는 역할은 중년 여성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에 합치하는 편이다. 중년기 여성은 가사 노동과 연령 증가로 인한 질환 경험 확률이 높으며, 신체와 심리적 변화에 따라 다시 자아를 확립하려고 노력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가사노동에 수반되는 반복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봉제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은 중년기 여성이 봉제 작업장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삶을 기준으로 이해해야할 문제가 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간한 자료 『직장 여성의 건강관리』에 따르면 중년 여성이 경험하는 10대 질환에는 관절염과 위염소화궤양, 요통 및 좌골통, 고혈압, 만성두통 등이 포함되고, 노년기 여성의 주된 건강문제로도 동일한 근골격계질환이 꼽힌다.<sup>21)</sup>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중년 이후에 퇴행성 질환이 발병하기 쉽고, 전반적인 건강 악화가 전망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운동을 통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sup>22)</sup> 더불어 작업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적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권하고 있는데,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는 특별히 노동자의 이해를 돕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sup>23)</sup>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세대의 젊은 여성노동자와 달리,

20) 이용미 외, *op. cit.*

21)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장여성의 건강관리』, 보건분야자료 (인천: 산업안전공단, 2005)

22) *Ibid.*

23) *Ibid.*

중고령 노동자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화로 인한 학습능력 감퇴 역시 고려된 방식으로 유추된다. 중고령노동자가 종사하는 직무의 특성과 높은 경력을 고려하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년여성의 일을 검토하는 작업은, 봉제노동자가 동일한 생애주기의 노동자에 비해 고강도 노동을 경력 단절 없이 수행하였다는 것에 착안할 때도 유의미하다.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중년 여성은 경력 단절 이후 육아 등에 매진하다 중년기부터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봉제노동자의 직무에는 특수한 기술과 업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대~20대에 경력을 쌓기 시작하여, 현재도 숙련된 공정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취업의 양태도 일반적인 중고령층 노동시장과 다른 맥락으로 나타난다. 본래의 업종에 한하여 취업이 이뤄지며 소득, 시간을 고려하여 객공제나 하청업체 창업, 봉제공장의 직원이 되며, 지위의 변동가능성도 높다.

기술직이지만, 업무 특성상 노동량이 많고 육체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봉제노동자는 동일 연령대 여성 노동자(40대)의 건강상태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sup>24)</sup> 여성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추측되는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관련 증상, 피로와 부종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가정 내에서 담당하는 돌봄과 가사노동의 영향을 받는 건강상 문제에

24) 김재희 외, *op.cit.* pp.69-89.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직무 특성 상 동일연령대 여성에 비하여 총 노동시간(유급노동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은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과잉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sup>25)</sup>

#### 4. 시간압박과 봉제노동자의 건강

##### 1) 시간압박 문제와 봉제노동자의 경험

여가와 시간압박은 젠더와 가족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안이다.<sup>26)</sup> 여가(Free time)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킨다.<sup>27)</sup> 각 가정 구성원이 유급노동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늘어나면서 ‘시간의 부족’ 경험은 늘어나기 마련이며, 특히 양육과 가사를 대부분 책임지는 여성은 시간압박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관찰된다.<sup>28)</sup> 과잉노동과 시간압박문제는 나

25) 인터뷰를 통해, 가사노동과 작업장에서의 노동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겪는 체력적인 피로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성피로와 장시간 노동에 관한 고충은 개별 노동자가 숙명적으로 감수하는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년이 상 여성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는 ‘중년 여성 노동자’ 일반의 경험과 한국 봉제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26) 세이어(L. Sayer)는 일과 여가는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시간 불균등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Liana C. Sayer,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005). 참조.

27) Marybeth J. Mattingly, Liana C. Sayer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l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2006) p. 206.

이, 성별, 교육 수준 등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각 변수와 시간압박(혹은 시간압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sup>29)</sup> 여가와 시간압박감과 관련된 남성과 여성 간 차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시간압박감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가시간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는 편이다.<sup>30)</sup> 여전히 ‘여성의 일’로 남아있는 가사·무급노동과 ‘젠더화된(gendered)’ 여가는 이러한 경향과 상통하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일과 가족, 여가의 갈등적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써 의미를 지닌다.

중년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시간압박감과 유·무급노동에 대한 의무감은 현재 진행 중인 ‘일-가정 양립’의 주요 쟁점에 상응한다. 실제로 여성봉제노동자는 시간압박을 경험하는데,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 작업장과 가정에서의 노동시간은 이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봉제노동자는 장시간의 유급노동으로 가족에게 쏟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남는 일과를 무급의 가사노동에 쏟아 부음

으로써 휴게시간 부족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아래의 면접녹취록을 살펴보면, 여성봉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지속하며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체감하는 시간 압박은 여가의 부족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보다,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부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요. 토요일은 5시까지 하거나 더 일찍 끝나거나”

“집에 가면 12시 반, 1시, 일어나면 6시예요”

“9시에 출근해서, 끝나는 시간은 대중이 없어요. 7시라고 정해놓고 7시 반이나, 8시나, 끝나는 시간이 대중이 없어”

봉제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의 장시간노동으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1일 기준 노동 시간만 긴 것이 아니라, 보장된 휴일의 수도 적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가 감내할 노동량이 많은 상황이다.

각 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시간의 과잉과 휴식시간의 부족은 아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동대문(시장)에서 주문받으면 아침에 받아서 저녁에 보내요. 휴식시간 없이, (집중하다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일 자체가 그런 걸, 안 돼, 안 돼, 일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이라도 하자 하면 좋은데

28) 제리 A. 제이콥스, 캐슬린 거슨,국미애 외 역, 『시간을 묻다』 (서울: 한울, 2010) pp. 54-57.

29) 제이콥스와 거슨의 저서 『시간을 묻다』는 미국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다각적인 변수를 검토하고 일-가족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의 사회적 변화와 정책 과제에 대해 제언을 담은 대표적인 예이다.

30) Michael Bittman and Judy Wajcman,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2000); Marybeth J. Mattingly, Liana C. Sayer, *op.cit.*

31) *Ibid.*

너무 바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30초라도 할 정신이 없지, 어떤 날은 오후에 원단 들어와서 물건 빼 줘 이려고”

“물리치료 가는 건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한 시간씩 빼야 하는데 어떻게 가.”

이를 통해 실노동시간과 노동량을 가늠할 수 있는 한편, 각 노동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압박감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맡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몰입함으로써, 화장실에 가지 못하거나 스트레칭을 할 여유도 갖지 못한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피로와 긴장을 풀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무시간이 길어 병원진료나 문화·체육활동 시설 활용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 2) 휴식의 부재와 건강문제

상술하였듯이 여성봉제노동자는 작업장에서 고된 노동을 통해 스트레스와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가정 내 돌봄을 전담하는 주체로써 개인만의 여가를 누리지 못한다. 봉제 노동자가 겪는 시간압박은, 일반적인 중년 여성의 휴식 부족과 관련된 시간압박감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압박감의 정도의 차이는 가늠할 수 없다.

봉제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건강관리 시간 부족은 봉제노동자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남성 종사자보다 여성 종사자의 부담이 더 큰 편이다. 여성 종사자는 작업장과 가정에서의 이중부담을 절감하며, 실질적인 휴식시간 부족과 개별 노동자가 느끼는 시

간압박감으로 인해 건강관리를 위한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년 여성은 생애주기 상, 노년층(중년 인구의 부모 세대)과 장성한 자녀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한편,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선 중년여성에게도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데, 우울감이나 분노 등 정서적인 어려움<sup>32)</sup>을 경험하기 쉬운 세대이기에 주변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sup>33)</sup>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노동봉제노동자의 여가·휴식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와 건강관리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체력단련, 근골격계 질환예방에 효과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완화를 촉진하는 문화생활 및 학습활동은 여성봉제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적합한 도구이다. 봉제노동자의 생애주기에 알맞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설계된 학습 프로그램, 재활운동 프로그램은 건강 향상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성봉제노동자가 지닌 시간 압박감이 완화되고 휴식시간이 일정 수준 확보될 때 위의 방안이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내의 여성학계와 연구기관은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를 지원하는 가족 정책 모델을 고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32)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간압박과 심리적 웰빙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해볼 만 하다. Kei M. Nomaguchi *et al.*, "Time Strai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2005)를 참조할 것.

33) 이용미 외, *op. cit.*

전개해왔다.<sup>34)</sup> 실증적인 연구로 논의의 타당성을 더해왔으며,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sup>35)</sup> 기존에 여성노동자의 일과 시간(압박감), 건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논의한다면 건강향상지원책의 현장적합성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화된 구조에서 여성노동자가 표현하지 못했던 고충과 바람을 탐구하고 이를 정책적 제언에 반영할 경우, 여성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 추가 연구의 필요성

여성봉제노동자는 작업장에서의 성별분업을 수용하여 고충을 견디고 있으며, 전통적인 ‘엄마, 아내’ 역할에 입각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압도적인 비중의 유급노동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에 가정 내 무급노동을 수행해야하는 입장에 처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관리와 휴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매팅글리(Mattingly)와 세이어(Sayer)의 논문은 양성간의 불평등한 시간 사용과 시간 압박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면서, 직업(직종)

34) 이후에 소개하는 연구들 외에도, 서울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정책연구원 등은 여성의 일과 삶, 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진행해왔다.

35) 차승은 외,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사용과 일-삶의 균형의 실태: 다국적시간연구(MTUS, Multinational Time Use Studies)자료를 활용한 한국 기혼여성 7개국 기혼여성의 시간 사용 비교”, 통계연구 20(1), (2015)

별 시간압박감에 대한 조사를 후속적으로 진행하길 제언했다.<sup>36)</sup> 봉제업 종사자처럼 극도의 장시간 노동을 일상화한 여성노동자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없으며, 정서적인 행복감도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도로 보인다. 젠더 연구 전문가의 참여가 전제된다면, 조사의 치밀성과 심층면접에서의 풍부한 증언을 담보할 수 있다. 봉제노동자의 이슈가 ‘노동 문제’이자 ‘보건문제’인 동시에 ‘여성문제’임을 인지하고 젠더관점을 대입한다면, 여성봉제노동자의 건강 지원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나가며

봉제노동자의 건강향상방안이 유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봉제노동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한국적 맥락에서 파악해야한다. 여성봉제노동자 이슈의 한국적 맥락을 검토하는 작업은 봉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부정하거나 제3세계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여성빈곤 문제를 묵인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국내 여성 봉제노동자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적실성 높은 방안을 고안해야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미혼 여성과 영유아 양육부담을 지닌 젊은 기혼 여성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방법과 유의점은 중고령 여성 비중이 높은 국내 봉제업계의 특성상 재고되어야할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중년 여성의 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36) Mattingly and Sayer, *op.cit.*

중고령 여성봉제노동자의 생애주기와 시간압박 경험을 고려한 지원방안 고안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 구조상 장시간 과잉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봉제업 종사자는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집약적인 일터에서의 많은 체력을 소모한다. 이들은 작업장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돌봄 전담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다수의 봉제노동자들은 윗세대와 아래 세대에 대한 부양을 책임지는 가운데,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층으로 접어들면서 노후계획과 여유로 삶에 대한 열망도 커지는 생애주기를 지나고 있다. 이들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법을 제시함은 물론, 휴식과 교육기회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간압박은 휴식과 건강관리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하는 문제이다. 중년 이상의 여성봉제노동자가 건강증진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봉제노동자는 다른 직군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훨씬 부족한 입장이다. 봉제노동자가 경험하는 시간압박과 휴식의 양상을 관찰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여가선용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다. 봉제노동자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봉제노동자의 건강향상 방법을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짧은 지면에 모두 실을 수 없었으나, 상술

한 주요 소재를 비롯한 젠더 관점을 수용하여, 봉제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재해석하는 과정은 유의미한 과정이다. 젠더관점에서의 질적 연구는 여성봉제노동자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건강문제와 건강증진방안에 대한 수요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며, 가정과 일터에서 받는 이중부담에서 해방되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중년이상의 세대적 특성을 지닌, 여성봉제노동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단행본]

김재희, 전수경, 한인임, 조성애, 박준영, 이관재. 2015.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 안전과 작업환경』 서울: 서울노동권익센터.

제리 A. 제이콥스, 캐슬린 거슨.국미애 외 역. 2010. 『시간을 묻다』 서울: 한울.

World Bank. 2006. *Cambodia - Women and work in the garment industry*. Washington, DC: World Bank.

### [논문]

Nomaguchi, Kei M., Melissa A. Milkie, and Suzanne M. Bianchi. 2005. "Time Strai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26(6): 756-792.

Ahamed, Ferdous. 2012. "Improving Social compliance in Bangladesh's Ready-made Garment Industry." *Labour and management in development journal*. 13 :1-26.

Sikdar, Mehedi Hasan, Sujahangir Kabir Sarkar, and Sumaiya Sadeka. 2014.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Female Garment Workers in the Capital City of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4(3) :173-179.

Sayer, Liana C..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285-303.

Mattingly, Marybeth J. and Liana C. Sayer. 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05-221.

Bittman, Michael and Judy Wajcman.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 165-189.

이용미, 김근면, 정유희. 2014. "중년 여성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570-582.

차승은, 은기수, 전지원. 2015.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사용과 일-삶의 균형의 실태: 다국적시간연구(MTUS, Multinational Time Use Studies) 자료를 활용한 한국 기혼여성과 서구 7개국 기혼여성의 시간 사용 비교", ≪통계연구≫. 20(1) : 24-48.

[페이퍼, 자료집]

한국산업안전공단. 2005. 『직장여성의 건강관리』, 한국산업안전공단 보건 분야 자료.

D'Ambrogio. 2014. "Workers' condition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just an Asian Affair?"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Briefing.

[기사 및 웹사이트]

김아람.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 30개월, 'H&M' 안전협약 이행 저조...개도국 노동자의 비애." 『더 아시안』 (2015.10.8.) (<http://kor.theasian.asia/archives/146960>)

Alexa Roscoe. "What BBC's Panorama didn't say about workers in Bangladesh." *The guardian* (2013.10.1.) (<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sustainable-fashion-blog/bbc-panorama-workers-bangladesh>)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조사표"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2](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2))



## 동향과 이슈 2015-4

발행일 2015. 12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인 김성희

03147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Tel.02)6925-4349 Fax.070-8250-4349 [www.labors.or.kr](http://www.labors.or.kr)